

신입 온보딩 체크리스트 및 키트 개선 논의

회의 내용

다음 안건 넘어갈게요. 신규 입사자 온보딩 프로세스인데요, 최근 입사한 신입들 피드백을 종합해보니까, 첫 주에 너무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소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. 특히 시스템 계정, 복지 안내, 팀별 프로세스 등등이 동시에 설명되니까 정리가 안 된다고요.

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게, '신입 주간 체크리스트' 형태로 각 항목을 시간 순서대로 분배해서 전달하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첫날은 사내 시스템 계정 등록, 둘째 날은 복지 가이드 오리엔테이션, 셋째 날은 팀 배정 후 온사이트 투어 이런 식으로요.

그것도 좋고, 제가 보니까 동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사내 위키에 올리면 반복해서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. 꼭 똑같은 설명 계속 안 해도 되고요.

좋은 의견이에요. 그럼 "신입 환영 키트"에 안내지랑 영상 링크 QR코드도 포함해서 구성해보죠. 지금은 텀블러랑 마우스패드만 들어있는데, 실용성도 살리고 정보도 전달하면 좋죠.

일단은 온보딩 개선안은 이 흐름으로 잡고, 다음 주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고 실제 적용은 다음 입사자부터 해보죠. 다음 입사 일정이 언제죠?

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신입 개발자 한 명, 기획팀 한 명 예정이에요.

회의 요약 및 결론

1. **신입 온보딩 개선안**

• 문제점: 신입 직원들이 첫 주에 시스템 계정, 복지 안내, 팀 프로세스 등 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되면서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• 해결 방안:

• "신입 주간 체크리스트" 도입:

• 첫날: 사내 시스템 계정 등록

• 둘째 날: 복지 가이드 오리엔테이션

- 셋째 날: 팀 배정 후 온사이트 투어
- 네째 날: 팀별 프로세스 및 업무 방식 안내
- 다섯째 날: 실무 투어 및 Q&A; 세션
- 미디어 자료 활용:
- 짧은 동영상으로 핵심 내용 요약 후, 사내 위키에 업로드.
- 반복 학습을 위해 QR 코드로 접근 가능하게 함.

2. **신입 환영 키트 구성**

- 기존 구성: 텀블러, 마우스패드
- 추가 아이템:
- 정보 안내지: 체크리스트 및 핵심 내용 정리
- 동영상 링크 QR 코드: 위키에 업로드된 영상 접근 가능
- 팀별 맞춤 안내서: 팀별 프로세스 및 문화 설명 포함

3. **시행 일정**

- 프로토타입 개발: 다음 주까지 완료
- 실제 적용: 7월 말 입사 예정인 신입 직원부터 적용

4. **다음 단계**

- 팀별 협업: 각 팀장이 팀별 프로세스 안내서 작성 및 검토
- 사내 위키 업데이트: 동영상 및 QR 코드 링크 추가
- 피드백 수집: 프로토타입 사용 후 신입 직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개선

5. **추가 사항**

- 입사 일정: 7월 말에 신입 개발자 1명, 기획팀 1명 입사 예정.
- 사장님 점심: 김밥으로 진행 중.

결론: 체계적인 체크리스트와 다채널 정보 전달을 통해 신입 직원의 온보딩 경험을 개선하고, 팀별 맞춤 안내로 소속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합니다.